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 세계와 약속한 여수선언의 정신적 가치 필요성

특별 좌담회박람회재단에 민간 매각공고 투자유치 조속 추진...여수시
국가 전략 유치 여수세계박람회, 남중권발전 허브역할 공간 조성...시민단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7주년 특별 좌담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7년이 지났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인류공동유산 해양사상을 고취시켰다. 여수시민들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였음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박람회장 활용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본다.

이하 내용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여수일보사 최형만 편집국장 등이 함께 한 좌담회다.

최: 지난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및 호텔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임영찬(이하 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시민들의 힘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법시민추진위원회, 여수EXPO시민포럼, 사후활용추진위원회로 이어져가 박람회 개최 후에는 지금의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운동에는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시민사회지도자들도 참여했는데 역시 박람회 후 동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수박람회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 발령에 매각소문이 있었고 최근 여수시장의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움직임이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재단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에 동조하는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만에 결집해 여수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여수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지를 매각해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정부 선투자금 3천7백여억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박람회재단은 리조트·숙박시설,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매각공고를 7차례나 했는데 전부 유찰되었다.

최근 어떤 민간투자자가 조원대 규모의 투자하겠다고 여수시에 의향을 밝히고, 여수시는 박람회재단에 속히 매각공고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 민간인에게 매각하려면 여수시도 투자 유치에 대한 명분이 있을 텐데요

이상훈(이하 이): 권오봉 여수시장 얘기는 박람회장이 활성화 안 되어있으니 민간자본에 부지를 매각해 기재부에 선투자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민간 투자자가 호텔도 짓고 해서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마침 투자자의향을 가진 민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각공고를 서둘러라 하는 의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박람회장은 그냥 하

늘에서 떨어진 땅이 아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주제로 전 인류가 당연한 기후변화대응의 해법을 찾아 제시하는 그야말로 유엔 주관의 행사를 치루고, 여수선언이라는 국제선언을 가진 보물과 같은 핫 플레이스다.

그래서 여수지역은 물론 뜻있는 전문가들은 여수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 대한민국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여는 거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려면 주제에 걸 맞는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박람회장이 여수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유익하게 쓰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그간 여수지역사회가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내린 일종의 합의이다.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해왔고 마침내 작년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설득해 2025년까지 매각 대신 제대로 된 활용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는데, 느닷없이 현 시장이 민간매각을 재단에 재촉해 처음엔 참으로 황당하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매각이 되어버리면 큰일이겠다 싶어 공문을 보내고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서둘렀던 것이다.

최: 하지만 박람회장은 오래전부터 사후활용을 위해 민간매각이 추진돼 오지 않았나?

임: 2007년 노무현대통령 때 유치할 당시, 기본계획에는 공적활용과 민간매각이 적절히 섞여 지속가능한 활용계획이었다. 불행히도 개최시기 대통령인 이명박이 민간매각으로 전환하고 이어 박근혜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박람회의 본래 목

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만 것이다. 보물단지를 애물단지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사후활용 아닌 사후청산정책이 문제다. 누구나 알게 되었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치적 지우기의 졸렬한 정책이었다.

정부 선투자금 3천7백여원은 그야말로 국가행사인 여수박람회를 치루기 위한 투자금이지 부채가 아닌데도 마치 여수가 정부에 빚진 것처럼 왜곡해 압박하면서 민간 매각 일변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공적 용도로 설계된 부지와 시설인지라 민간자본의 입장에선 매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7차례나 유찰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간개발도 공적개발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흘러 이 지역에 이른 것이다.

최: 그렇다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이: 현재 기후변화대응은 온 인류의 과제이다. 지구별망을 다투는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바깥 전 유엔사무총장을 국가기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응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104개국 10여개 유엔기구가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인 여수선언을 박람회장에 실현시켜야한다. 예컨대 2022년에 아시아권에서 열릴 차례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여수박람회장에 유치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것은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자본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좌)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우)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나아가,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외된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유치하고 치른 여수세계박람회이니만큼 남중권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

이 역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재원을 나눠 추진할 정책과제인 것이다.

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람회장에 있는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도 기억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의지와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임: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오셔서 ▲참여정부가 여수박람회를 유지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미래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점 확인 ▲박람회장부지와 시설은 투자

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 ▲대통령이 되면 박람회장에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및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민간매각 해버리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수시장은 부지 매각하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일에 열심이여야 한다.

최: 여수박람회의 정신은 비단 여수만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두 차례 도전 끝에 이룬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여년의 히

스토리과 가치를 품고 있는 기회와 꿈이다. 그 안에 서려있는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민들의 꿈과 꿈, 피와 눈물, 애환과 희망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열어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와 공의를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과 유산 앞에서 결속하게 자기 소명과 역할을 다하는 기관과 시민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충정이 우리의 임정임이다.

여수시장은 박람회민간매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몰두해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주입시키려하지 말고 여수시민의 20년 히스토리를 인정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길 바란다.

글 최형만기자·사진 김영주기자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개최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 매각 아닌 공공적 사후 활용해야...
남해안지역민 공공 이익 위한 공간으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여수박람회법 통과이후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지난 27일 박람회장 기념관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날 심포지움은 여수시와 여수선언실천위원회·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여수시장,류중구 동서포럼 상임위원장, 도·시의원, 토론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김천준 용인대 교수는 '세계의 워터프런트 개발동향과 여수의 해양관광 가치와 전망'을 통하여 '여수박람회장은 한국의 대표적 해양관광의 자산가치가 있는 곳으로, 향후 여수관광의 핵심은 크루즈관광과 마린사 시설이 여행수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며 박람회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진구 해양수산부 전남동부연맹 사무처장은 '여수청소년 해양교육원 발전방안'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발전방향으로 상시 해양레포츠 체험을 위한 운영 일정구성 및 실내용품을 활용하고, 여수지역의 특징인 다양한 해양관련시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수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정희 전라남도 도의원은 "국제컨벤션센터 용역에 의하면 박람회장내 컨벤션센터 건립은 경제성이



양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국토균형발전을 감안하므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전남도간에 의견조율을 통해 공공적 활용방안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정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 본부장은 "사익을 위한 민간매각 보다는 여수선언 정신 구현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3,724억원(정부보상환급)은 국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며 여수선언 정신이 더 큰 가치가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을 통하여 국제적 여수선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박람회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만 석탄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수선언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해양개발 목표 혁명, 인공지능 등과 연계한 국내

최초로 새로운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행기 여수시의원은 "크루즈 및 국제여행객 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확충이 필요하다. ABC부지는 항만배후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일 국제적지역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6월5일 오후2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해수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여수선언실천위원회등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간담회가 열렸다.

이규양 기자

여수 고급리조트 왕지네 사건, 해결책 없이 신경전

무성의한 리조트 태도에 화난 홍씨 가족, 어디에나 벌레는 있다는 리조트 관계자

럭셔리 스위트룸 정상이 43만원, 할인가 30만 1천원인 여수고급리조트에서 왕지네가 컷속을 물은 사건이 지난 5월11일 일어났다.

이날 리조트에 머물렀던 예비신부 홍모씨(30)는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잠자리에서 왕지네가 컷속을 물어 출혈과 독성으로 인해 얼굴이 부은 상태로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맞게 되었다.

예비신부 홍씨는 오른쪽 귀를 붕대로 감은 채로 시뮬 어르신과의 첫 만남의 인사를 해야 했다.

상견례는 취소가 되었고 리조트 측은 대응은 몰아가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 홍씨의 주장이다.

홍씨 아버지는 보상을 어떻게 해결했인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리조트 측은 치료비 청구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했다.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는 격분했고 리조트측의 초기 대응은 객실요금 환불에 대한 확대



도 없었다.

뒤늦게 리조트 측은 홍씨 가족이 터무니없는 취소는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홍씨 가족은 객실비용, 치료비, 상견례취소에 따른 증여, 위자료 등 딱 한 번 찾기에 300만원을 보상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홍씨는 17일 여수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리조트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와 환불을 해주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질문을

했다. 여수시청은 민원제기로 긴급 위생점검을 나갔고 지네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은 리조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객실이 20개 넘는 숙박영업시설은 매달 한 번 이상 외부기관에 의뢰해 소독을 해야하는데 해당 리조트는 지키지 않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어디 가더라도 벌레에 물릴 수는 있다면서 할 만큼 다했다는 리조트 관계자.

망쳐버린 상견례와 고통에 힘들어하는 예비신부.

치료비와 객실요금 환불,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 보상금 300만원을 요구했던 홍씨는 리조트 측의 주장대로 과연 '블랙 컨슈머' 일까?

최형만 기자

권오봉 시장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의 뜻 밝혀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7일 박람회장 활성화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민간매각에 따른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권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시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포럼, 등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람회장 민간매각 반

대를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권시장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여수박람회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마침 민간에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그레까지 중앙정부도 설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시절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사후활용에 대한 덕담을



건넌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돼야함을 언급하며 실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 각도 밝혔다.

김영주 기자

알림방

전남도.하절기 24시간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전라남도도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하절기 24시간 비상 방역 근무체계를 운영.

질병관리본부, 22개 시군 보건소와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에 유선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여수시(시장 권오봉)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

시는 지난 2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대상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은 먼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여수시, 다문화가족'맘's 오카리나 교실'무료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맘's 오카리나 교실을 무료로 운영.

대상은 여수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이다. 여수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7월 초부터 11월까지 주 3회 교육. 참여를 희망자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센터(☎659-5429)로 신청

여수시 상품권,6월부터 5% 할인 판매
6월부터 여수상품권과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이하 여수시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인상한다. 상품권 가맹점은 마트, 주유소, 전통 시장 등 3000여 곳에 이른다.

여수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 공시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59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등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사판리(http://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여수시, '자전거 무상 이동수리반' 12월까지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상 수리에 나선다. 시는 이달 29일 문수 중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자전거 무상 이동수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개 반 3명으로 구성된 수리반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순회하며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체인 등을 정비한다.

오은진 기자

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조사특위 사퇴

송하진 전남 여수시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능한 여수시의회 웅천택지지구실태과약조사특별위원회(이하 웅천 특위)로는 웅천 특혜의혹을 밝힐수 없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웅천특위 사퇴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웅천 특위는 전문성과 냉철한 비판 등 원칙이 없고, 의장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 구성된 반쪽 특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웅천특위가 과연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려는 의지조차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

김영주 기자

...생략
여수시의회 웅천특위는 올해 2월 ‘웅천택지지구의 특혜의혹을 날벼락’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 각고 끝에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소속 의원 구성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타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박되는 등 구성자체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소속 의원 재구성을 촉구하였으나, 여수시의회는 이 같은 시민사회와 요구마저 묵살한 채 의장의 입장에 맞는 의원들만 배치시켜 출범을 강행하였습니다.
웅천택지지구의 전반적인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냉철한 비판,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력이 요구되었으나, 웅천특위 위원 구성은 그러한 원칙도 없이 의장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하여 구성되어 반쪽 특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생략
웅천택지지구의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혜의혹, 택지개발사인 블루토피아 계약 문제 등 의혹에 물린 솔한 사안들이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 조영되어 왔으나, 웅천특위는 그동안 무엇하나 뚜렷이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웅천특위가 과연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려는 의지조차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특혜의혹을 해소하기보단 덮으려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위 기동 이후 지금까지 대시민 보고회는 고사하고, 내부 보고회 한 번 하지 않은 현실은 웅천특위가 다수의 동료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구성됐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웅천특위가 지금껏 웅천택지지구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의 뚜껑조차 열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단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략
이러한 특위에서 본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특위에 소속된 일개 의원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웅천택지지구의 총체적 부실을 밝혀내기엔 많은 제약과 견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바 본 의원은 웅천특위를 사퇴하여 독자적으로 웅천택지지구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각종 난개발로 누더기가 된 웅천지구입니다.

...생략
특위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웅천특위에서 사퇴하는 입장입니다만, 웅천특위를 전략적 계산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특권층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시민 여러분께서 단호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지만 뒤늦게라도 웅천특위 소속 의원들을 재구성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특위로서 활동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진정 여수를 사랑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 사무까지 담당하는 문제 있어
유역물관리 사무국 설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3일, 각 지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에 대한 중

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위원회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만 있을 뿐, 유역

물관리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역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

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과 가뭄 및 홍수같은 재해방지를 위한 민원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 웅천특위가 초청받지 않았다고 하여 특위가 무능한 것은 아니라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고 특위원들도 확인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주기자

여수시의회웅천특위, 송하진의의원 주장 ‘정면반박’

“특위위원 인격모독하고 특위활동 매도한 송하진 의원은 공개 사과하라”

여수시의회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과약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중섭, 이하 웅천특위)가 지난 28일 웅천특위 위원사퇴 기자회견을 자처한 송하진 의원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입장문을 작성 배포하는 등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웅천특위는 지난해 12월 189회 정례회에서 1년간 활동계획을 승인받아 매월 1차례 이상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출석 요구하여 관계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활동까지 병행해왔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천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웅천특위활동을 폄하한 송하진 의원의 주장에 웅천특위는 정면으로 그 발언내용을 조목조목 파헤쳤다.

웅천특위는 ‘의장의 입장에 맞는 의원들만 배치시켜 출범을 강행하

고 의장 독단으로 구성된 반쪽특위’라는 주장에 대해 “왜곡됐다”며 “웅천특위가 송하진 의원의 발의로 구성됐고, 특위위원은 조례에 따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선출(초선, 재선 등)과 지역구 등을 고려하고 배분해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참여의사를 물어 회담자 위주로 추천하여 본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위위원이 선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웅천특위는 ‘의혹이나 문제점을 특위차원에서 다뤄진 것이 전무하고 특혜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허위사실이며 특위활동을 모독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웅천특위에 따르면 “그동안의 7차례 회의를 걸쳐 사업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있었고, 검

찰, 감사원감사, 전남도감사 등 각종 수사와 감사에도 특혜나 위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시민 보고회는 최종 실태과약이 된 후 보고할 사항이다”면서 “방대한 자료의 세밀한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정리한 후 시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송 의원의 ‘형식상 의원들을 모아놓고 논공행상을 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웅천특위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떠한 상’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논공행상이나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특위원들을 매도했다”고 꼬아붙였다.

특히 지난 21일 이순신마리나에서 열린 강정희 도의원과 웅천주민

간담회에 웅천특위의 참석여부와 관련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도 특위를 옹호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웅천특위는 도의원이 웅천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 주민 민원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 웅천특위가 초청받지 않았다고 하여 특위가 무능한 것은 아니라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고 특위원들도 확인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웅천특위는 송하진 의원의 주장이 “특위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원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던 공인이다, 특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시민이 그 임무를 준 것인데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더라도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사퇴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송하진 의원은 7차례 회의에서 질의는 단 2차례 회의에 불과하다”며 “실제 특위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진정 웅천택지 의혹을 파악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의

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 회의에서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지만 본인이 고사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라 해명하며 “특위활동을 위해 연구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결과를 도출에 노력해야 함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사퇴를 하고 언론을 통해 특위를 매도한 것은 다분히 처음부터 특위활동 자체를 부정?와 해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위원 자격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으면서도 독자적으로 특혜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은 몰수행동으로 언론과 시민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웅천특위는 송하진 의원을 향해 “지금까지 성실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지역사회를 혼탁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규원기자

여수시의회,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즉각 중단’ 촉구

7년 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 전면 재검토...공공성 있는 사후활용 대책 수립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며 투자금 3700여 원을 상환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매각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재의원 26명, 서완석 의장 외 21명 찬성)도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기재부,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박람회장 매각부지로 거론되는 리조트 숙박시설 A구역과 워터파크 시설 B/C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민간매각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2012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여수시민과 남해안권 국민들이 이뤄낸 값지고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박람회 이념을 구현하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헛된 구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그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30만 여수시민의 염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보인다”며 “민간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람회장 민간매각은 박람회 유산과 정신에 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과도

배치된다”며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 박람회장 간담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일회성이 아닌 지역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여수박람회장이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남존권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공간이자, 동서통합 실현의 최적의 장소’라며 “정부가 박람회의 가치에 좀 더 부합하는 공공적 사후활용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그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 공언에 정면 배치되는 박람회장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7년 전의 기존 사후활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 있는 사후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지자체는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여수선언’의 실현과 영호남 동서통합의 반석이 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로 “여수신북항을 비롯한 박람회장의 친수공간은 코루트부

두 활성화에 대비해 국제여객선, 크루즈터미널 및 부두시설 등을 통합 개발할 부지가 필요하므로 박람회장이 해양관광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일반 면세점과 관광객 편의시설, 남해안권 및 국제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관광센터 건립 등 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 클러스터로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최현란기자

시의회 소식

여수시의회, 4일 제193회 정례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19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올해 첫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17일과 18일 2일간 시정 질문·답변을 처리한다. 마지막 본회의인 19일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안(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외 4)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해양도시건설위는 여수시가 한

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한 민홍지구 대규모 주택공사 사업장과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인근 주택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고용진 시의원, ‘여수형 청년정책’ 수립 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여수시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꿈트랙들과 같은 여수시의 정책사업 수행과정과 청년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논의해 보겠다”면서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수형 청년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토론회를 위해 여수시

역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와 청년대표를 초청해 여수시 미래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여수지역대학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방대학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수지역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창곤 시의원이 주최해 지역대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기업과 지역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정책토론회는 전창곤 의원이 좌장을 맡아 4명의 주제 발표자의 의견을 조율한다. 주제 발표는 박상규 전남대여수캠퍼스 부총장과 신광수 한영대학교 교학처장, 안성수 동신대학교 교수, 조계운 여수시교육지원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박성미 시의원, ‘여수시 대안교

육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획일적인 공공육 제도에서 탈피해 학생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 여수시 대안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미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여태전 상주중학교 교장, 정재천 TCS국제학교 기획실장이 주제발표를 나섰다.

송연선 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교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대표전화 : 061)654-8885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654-8885, 팩스 : 070)8220-8808

기사제보·배달안내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등록번호 : 전남 다 00343(주간) *등록일 :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우리 동네 소식



소라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호응'

1월부터 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

여수시 소라면(면장 최영철)이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펼쳤다.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각종 복지 시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소라면은

지난 1월부터 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적급여 연금 5건, 사립관리 20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5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여서동, 꽃밭 '새 단장'...주민 '호평'

29일 자투리땅과 아파트단지에 베고니아 등 여름꽃 7000여 본 심어

여수시 여서동(동장 김재호)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여름꽃밭을 가졌다.

여서동은 지난 29일 여명공원 자투리땅과 아파트단지 베고니아, 메리골드를 비롯한 여름꽃

7,000여 본을 심었다. 이날 꽃밭 가꾸기에는 여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을 남?여 지도자 등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총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려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합동생신잔치 열어

한려동 새마을부녀회는 경로당 이불 지원

지난 28일 여수시 한려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숙)가 공화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합동생신잔치를 열었다.

이날 부녀회원 5명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신상을 어르신 10명

에게 대접했다. 한려동 새마을부녀회는 경로당 이불 지원, 소외계층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아로동고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 광림동, 행복을 심는 원예교실 운영

원예수업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 효과

지난 28일 여수시 광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박수로, 차미정)가 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독거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향도선사회(회장 김영문)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한번 더 열릴 예정이다. 원예수업은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수시 쌍봉동,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28일, 김치 100박스 경로당, 소외계층 전달

여수시 쌍봉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신태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상심)가 28일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건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원 50여 명은 열무 물김치 1000kg를 직접 담갔다. 물김치는 10kg 100박스로 포장돼 쌍

봉동 26개 경로당과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됐다. 신태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이 시원한 물김치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상심 회장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김치를 만들었다"며 "맛있게 먹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려동, 이웃 사랑 '빨간 냉장고 2호점' 열어

27일, 주민자치센터 1층에 마련...여수향도선사회 300만 원 후원

여수시 한려동(동장 김석순)이 지난 27일 주민자치센터 1층에 '따뜻한 빨간 냉장고 2호점'을 열었다.

빨간 냉장고는 여수향도선사회의 기탁금 300만 원으로 마련

됐으며, 한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을 맡는다. 관내 업체와 주민이 식료품 등을 기부 후원하면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자유롭게 냉장고에서 물품을 가져간다.

여수시 석천마을부녀회, 먹거리 장터 수익금 기부

관내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

지난 28일 여수시 민덕동 석천마을 부녀회(회장 정영자)가 만덕동(동장 김동석)에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엑스포타운 힐링을 악회 먹거리 장터 수익금으로 마

련했다. 민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동석, 이호남)는 기부금을 관내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화정면, 꽃밭 조성 '구슬땀'

다음 달 초 하화도 꽃길길 3039㎡ 꽃밭에 코스코스 파종

여수시 화정면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백야항 진입로, 백야대 주변, 화백마을 진입로 등에 메리골드, 베고니아, 페튜니아 등 여름 꽃 7000본을 심었다. 꽃 심기에는 화정면 부녀회, 이장단,

면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화정면은 다음 달 초 하화도 꽃길길 3039㎡ 꽃밭에 코스코스를 파종해 관공과 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 삼일동, 자투리땅 꽃밭 가꾸기 '구슬땀'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참여

여수시 삼일동(동장 신영자)이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신덕해안가 자투리땅 꽃밭 2개소와 관내 도로변 5개소 5500㎡에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여름 꽃 7300여 본을 심었다.

이번 꽃 심기에는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여수시 동문동, 독거어르신 행복반찬 나눔

저소득층 도배·장판 교체, 긴급 복지대상자 발굴사업 등

지난 22일 여수시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진두, 박보근)가 행복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손수 만든 잡조림, 김치 등 밑반찬을 독거어르신 23명에게 전달하고 어르신 안부를 살폈다.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도배 장판 교체, 긴급 복지대상자 발굴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오은진기자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정책세미나’ 성료

17일(금) 오후2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려..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가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의 중심이 되어 농가소득증대의 초석이 되길

이용주 국회의원(여수시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 17일(금) 오후2시 여수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도와 여수농협 및 여천농협, 한국전력공사, 남해화화 등 관련단체 및 농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녹색에너지 연구원 임철현 태양에너지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17일에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환 사무총장 ▲한국농민발전 강경만 부장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과 이상진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팀장 ▲농어촌공사 에너지상생부 김대성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문석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근 전라남도도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착수해 연말부터 태양광시설에서 발전계획을 하는 등 본격적인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세미나는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 농업생산량 감축우려를 불식시키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전라남도도는 가장 넓은 경지면적과 풍부한 햇빛, 강한 조류와 바람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어 태양광사업을 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여수는 빛양(陽)자가 들어있는 화양, 덕양의 지명이 있을 정도로 태양광사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비록 사업 초기이지만 농업인들과 뜻을 가



진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여수가 영농형태양광사업의 중심이 되어 농가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 웅천 한화꿈에그린 앞 육교 설치, 이번엔 위치 선정으로 논란

여수시가 웅천 한화꿈에그린 앞 육교 설치 관련으로 올해 1차 추경에 15억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여수시의회192회 임시회인 해안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설치하자는 의견과, 시 예산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격론을 벌인 끝에 설치찬성 의원 4명 설치반대 의원 4명으로 가파르기로 예산안 전액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위험한 8차선을 건너야할 통학 초등학생을 위한 예산통과는 겨우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시의원이 있다.

여수시 정경철 시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육교설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설치 위치가 꿈에그린에서 더테라스 쪽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되면 아이들이 한화에서 더테라스쪽으로 육교를 건너고 꼭 따라 올라가 생태육교를 한번 더 건너야 한다.”라고 말하며 “

육교 설치 예정 지역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돌아가야한다.”라고 위치의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육교예산 통과는 됐지만 위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경철 시의원의 주장이고 육교는 아이들의 통학길이 위험한 꼭 필요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철 의원은 “시예산은 더 투자하더라도 필요한 위치에 4방향에서 시민과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원형 육교를 세워야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한편 선경아파트 양지교과교와 이마트 앞 육교를 원인자 측에서 건설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앞 육교 설치 논란이 있어 예산 통과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최향란기자



여수시-여수교육지원청 에듀택시 운영 협약 체결

여수시(시장 권오봉)과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이 여수시청에서 에듀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에듀택시는 농어촌 원거리 통학생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교통이 취약한 읍면 거주 초·중·고생 가운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km가 넘고 버스 승차 시간이 1시간이 넘는 학생이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관내 4개 초

중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에듀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사업비는 4500여 만 원이고,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면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규원 기자



여수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평가했다.

여수시의 활발한 기업유치, 다양한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 산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여수시 고용률(15~64세)은 66.1%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7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



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노력한 점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N개의 목소리 (호루라기)

본인의 소유자가 아닌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주인행세를 해온 한정식씨!

심지어 당장 차를 빼라고 호통까지 치는 그 뻔뻔한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

현재 민원을 넣은 상태고 오랜 기간 동안 주인행세를 하며 여수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함을 준 한정식 씨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주차했다가 봉변당한 최00

이 도로에 주차라인~ 누구의 주차장인가요?



♠자원봉사자 감사야유회♠ 꽃처럼 활짝^^ 별처럼 반짝반짝^^



2019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감사야유회, 여수엑스포역에서 집결하여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향해 출발했다. 오늘은 여수시 각 단체별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은 새로운

맛을 맛보는 여행이라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나이를 초월하여 소년과 소녀가 되어 얼굴이 부서지도록 하하호호결절거리며 매력을 발산하는 장미처럼 웃음꽃 날렸다. 누군가 장미는 영어로 뽀빠요. 물어보니 로우즈라고 답한다. 그럼 백합은 영어로 뽀

예요. 물어보니 릴리라고 하신다. 모두들 일어나서 릴~리리 송을 합창한다.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 맘보~~ 모두들 꽃처럼 활짝^^ 별처럼 반짝반짝^^ 웃고 빛내며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다. 최정규 시민기자

독자기고



여수소방서 강상연민원팀장

방화(放火)란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절이나 주기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방화(放火) 예방에 노력해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므로 우리 모두의 주의를 요구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철 화재 중 '방화(放火)' 화재발생건수는 81건(2.1%)이나, 사망자는 26명(53%)으로 방화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추세를 나타냈다. 방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정불화, 단순 우발적, 비관자살, 불만해소, 횡감, 범죄연쇄, 보험사기, 심지어 하나의 재밌는 놀이(불장난)라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성적 통제가 불능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혹은 고의로

불을 질러 자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를 통해 연신 들려오는 방화 사건에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듯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럼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

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나 승려문 방화사건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우리 모두 때론 청소년들에게 방화가 큰 범죄임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어 때론, 방화우려대상의 감시자가 되어 때론, 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가가 된다면 방화 없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 믿는다.

♠고양시 관산동,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 벤치마킹♠



“오늘은 즐거움을 먹었다”

이순신광장에서 만나 중앙동 일원(진남관, 고소대첩비각, 달빛갤러리, 오포대, 신호연박물관, 고소천사벽화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이다. 고양시 각 동 동장님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30명의 위원들이 함께 오셔서 총60명을 모시고 출발했다.

오늘은 해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맑음 뽀뽀 놀리며 고소천사벽화마을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고소천사벽화마을에 오셔서 기대세요. ~기대하세요. 왜! 여수의 햇살은 맑음 놀리는 만큼 향기가

있는지. 왜! 고소천사벽화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각 구간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민들의 정성과 열정이 문화, 예술,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여수에 오셔서, 고소천사벽화마을에 둘러서 마음껏 즐거움을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지금부터 즐거움을 드시러 출발합니다. 출발, 부릉부릉~~ 최정규 시민기자

30년 후 나의 자식에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건강하고 웃음 넘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루고 가끔은 혼을 내겠지만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끼리 공원산책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너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동생을 잘 챙겨주고 동생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루고 싶은 꿈도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 파이팅!

서태운(여문초4년)

다이나믹 여수여행



한 설명과 여수에 대한 자부심은 여행객들에게 여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성웅 이순신 장군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 여수순천사건의 진실, <예술의 섬 장도>를 개장했다는 정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갯벌 이야기 등등....

특히 소호 동동다리에 있는 “갯길 걸린 동상” 이야기는 마치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구수하고 재미있었다. 해설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음 날부터는 여수 섬여행 지도 한 장 들고 발길 닿는 대로 다녔다. 다니면 다닐수록 가깝비에 못 짓듯이 나는 여수의 매력에 빠지고 있었다.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남도 여수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나 홀로 천천히 여수를 탐방하는 나만의 계획이 채택되어 2주간의 여수 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수시청의 인터넷 사이트와 도서관에서 빌려온 여수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지만 글을 통해서 보는 여수는 느낌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

여행 첫날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여수시청 관광과를 찾아갔다. 담당자분의 친절함 설명을 듣고 팀장님이 제안해 주신 <섬에서 만나는 인문학 체험>도 참석하게 되는 행운도 덩어리 얻고 지리를 익히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티투어 버스를 체험하였는데 2코스를 들었다.

드디어 남도 여행을 하고 있음이 실감났다. 역시 여행은 오감으로 느끼며 다녀야 제 맛이다. 코끝으로 전해오는 갯가의 해초 향기, 잔잔한 바다에 동동 떠있는 예쁜 섬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보고, 그리고 시청에서 파견된 해설사님의 해박

어졌을까! 여수에는 365개의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실감도 나지 않고 믿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120퍼센트 믿게 되었고 실감도 하며 모든 섬들을 하나하나 포근히 안아주고 싶다. 보는 것만으로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

2년 전 캐나다 세인트로렌스강 하구에 있는 천섬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의 감격과 부러웠던 기억이 오버랩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곳이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모르고 남의 나라에 가서 감격하고 감동했던 내 모습에 부끄러워지고 예쁘게 빛나고 있는 365개의 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여수에 자주 와서 예쁜 섬들을 포근히 안아주며 칭찬해 주고 나도 위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캐나다의 천섬처럼 각각의 섬마다 특징적인 건물이나 조형물을 꾸미고 스토리텔링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어지는 곳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주일동안 여행 다니며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글을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여수가 아름답고 예쁜 365개의 섬을 가깝비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여수사람들 또한 친절하고 정을 나누며 얼굴에 웃음기 있는 모습들이 멋진 자연과 어우러져 여수는 살아보고 싶은 도시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참 촌스럽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역양에서 배어나오는 정감이 낯선 관광객의 피로와 서먹함을 풀어주는 묘한 매력이 있음을 느끼는 여행이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수야 사랑해! 많이 오고 싶어질 거야,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올게!

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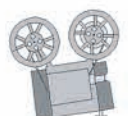
어린이 환경지킴이 성산공원 주변 쓰레기 청소



어린이 환경지킴이가 성산공원주변 환경 정리를 하였다. 공원에 있는 무대 바닥에 껌을 떼고 쓰레기를 주웠고 호수 물 정화를 위해 호수에 휴광을 만들어 넣었다.

환경지킴이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성산공원 주위가 더러워지고 호수의 물이 오염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민재 어린이기자(무선초6년)

스쿨존 내 무단으로 버려지는 온갖 쓰레기, 불법주정차...



현장취재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한 무선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켜달라는 캠페인에 나섰다.

무선초등학교는 골목에 위치한 학교라서 도로가 좁다. 반대방향에서 차를 만나면 서로 비켜지나가기도 힘든 구간이다.

이런 골목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학교를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빙 둘러서 온갖 쓰레기가 날마다 쌓여있어 참다못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기자가 무선초등학교를 찾아 둘러보니 쓰레기더미에는 썩은 음식물 냄새로 물러든 엄지손톱만한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이 쓰레기더미들은 학교를 빙 둘러사방 네 곳에 버려져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부터 가구, 폐플라스틱 잔으로 다양했고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간이다.

무선초등학교 스쿨존은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세워져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 바닥에 선명하게 써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스쿨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캠페인을 하는 학부모 김 모씨는

“지금도 냄새가 이렇게 고약한데 날이 뜨거워지면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는가. 마리가 지끈거릴 정도다.” 라고 말하면서 “급식실 유리창쪽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급식실 안으로 악취가 들어온다”며 분개했다.

등교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가 가득하고 온갖 쓰레기로 악취구역을 되어버린 무선초등학교 스쿨존, 여수시의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여수시는 등하포길 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으로 3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안전지킴이 100명, 사업예산 7억 5000만원을 투입시켰다.

글: 최향란기자·사진:김영주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여수시 “사고 유람선, 시민 4명 승선...1명 구조”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 5분쯤 다뉴브강에서 바이킹 시선에 충돌당한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다. 헝가리인으로 알려진 선장 1명과 승무원 1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침몰한 유람선에 여

수 시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이 가운데 황성자(49)씨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43)씨 등 3명은 실종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3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재난 안전 영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여수 실종자 가족들이 헝가리로 출발한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코루츠선 바이킹시선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주 기자

여수 웅천지웰아파트 내 상습 아동학대 A어린이집 ‘폐원’...원아·교사 전원 퇴소



해당 어린이집 원아·보육교사 지난 31일 전원 퇴소...학부모 40명 동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장 퇴출 결정. 경찰 CCTV 조사서 아동학대 정황 확보

영·유아를 상대로 상습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제기되었던 여수 웅천 A어린이집이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 달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에서 최근 보육교사가 원아 6명에게 정자세로 1시간 50여분간 앉아 있도록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어린이집을 다녔던 영·유아들(0세부터 만 2세)이 지난달 31일 부모 전원 퇴소함에 이어 해당 보육교사들도 모두 퇴사해 폐원이 결정됐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과문이 커지면서 원아와 보육교사들이 단체로 빠져나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폐

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 40명의 동의를 얻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계약해지돼 퇴출이 결정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확인 정밀 분석해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직·간접 증거들을 상당부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의 폐원은 급작스럽게 이뤄진 이례적인 일로 조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영선 기자

여수 연도 해상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 밍크고래 불법포획 흔적 없어...



여수시 연도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H 호(24톤, 어장관리선, 여수선적) 정치망 어장 안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 정치망 소유자 최 모(57세, 남)씨가 돌산 해양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죽은 밍크고래를 인양해 돌산 군내항으로 입항한 H 호에서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국립수산물관리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을 하였다.

확인 결과, 밍크고래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최 모 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혼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45cm, 둘레 2m 60cm 가량의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포획 소재 수협에서 위판 될 예정이다. 이규원기자



(주)드론세상
부설 여수 드론세상교육원

드론 국가자격증

(정식명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1:1 교육생 맞춤형 정밀 교육!
5월 中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 인가예정! (인가시 필기시험 면제)

- 드론 정비교육 • 드론 판매 및 수리
- 드론 방제전문 • 일반 방제/친환경 방제
- 항공/영상 촬영 • 고층 구조물, 교량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촬영
• 축제, 행사, 관광명소 등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 드론 현장교육 • 드론 출장교육 가능

CYNDRONE · CERES10s (케레스) 대리점 A/S

NAVER 여수 드론세상 검색

061-686-8090

위치 : 여수 화장동 886-2 (무선담배인삼공사 뒤 공영주차장)

여수해수청,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부터 흥미롭고 현장감 있는 체험과 다양한 강의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다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자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 중, 고 30

개 학교 2,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7개 과정이 운영되며, 항만·해양시설 견학, 여객선 승선체험, 생태체험, 수산자원 연구현장 체험, 해양레포츠 및 생존수영 등 체험형 현장활동과 교육형 해양강좌인 '찾아가는 해양교실' 등이 준비되어 있

다. 특히, 벽지·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겁고 쉽게 흥미로운 해양문화를 공유하고, 해양수산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농사는 자연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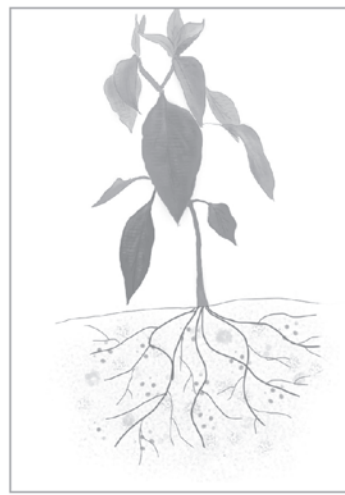
작물의 뿌리도 사람처럼 호흡할까?



하병연

이학박사/사인

국립경성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박남훈 그림

작물의 뿌리가 지하부 땅속에 있다고 하여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작물도 사람처럼 지상부이든, 지하부이든 간에 호흡을 한다. 호흡을 못하면 시들어 죽게 된다.

집안에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화분에 있는 꽃을 죽이는 경우가 흔한데 그 이유는 주로 물주기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이다. 보통 토양은 고상(固相, 토양의 고체 부분) 50%, 액상(液相, 토양의 액체 부분) 25%, 기상(氣相, 토양의 기체 부분) 25% 정도 구성되어 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공기가 들어 있는 기상 부분이 액상 부분으로 채워지게 되어 화분 속에 들어 있는 뿌리가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결국 뿌리가 썩어 죽게 된다. 물론 물을 너무 안주면 액상 부분이

적어지고 기상 부분이 많아져 꽃은 목말라 죽게 된다.

근권의 산소농도와 작물의 생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작물이 능동적으로 양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뿌리 호흡을 통하여 에너지(ATP)를 획득하여야 하는 데 이때 다량의 산소가 요구된다.

즉 작물의 뿌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요구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양분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뿌리도 호흡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뿌리의 신장, 뿌리 막의 기능유지 및 양수분 흡수 등에 소비되는데 토양 중 산소 공급이 불량하게 되면 사이토키닌과 같은 식물 호르몬 합성이 억제되어 식물 생장이 저해되고 작물 뿌

리 수가 감소하고 뿌리 신장량이 급속히 떨어진다.

그런데 벼와 같은 수생식물의 뿌리는 왜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줄기와 잎자루에는 발달된 통기조직(通氣組織·Aerenchyma)이 있다. 이 조직은 잎에서 흡수한 공기를 물속에 잠긴 뿌리에 전달해 준다. 이것이 바로 벼 뿌리가 썩지 않는 비밀이다. 물속에서 벼 뿌리가 썩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항상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눈에 물을 채우면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로 바뀌게 되는 데 벼 뿌리는 환원 상태보다는 공기가 많은 산화 상태에서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벼의 생육 단계에 따라 눈에 물을 넣고 빼주어 벼 뿌리 쪽으로 수분과 공기를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작물은 줄기나 잎에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호흡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으면 뇌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듯 사람의 뇌와 같은 작용을 하는 뿌리도 호흡 하지 않으면 치명타를 입는다. 그래서 사람이나 작물은 숨을 제대로 쉬어야만 살 수 있다. 편하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사람이 나 작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한해강의 <해양바라기>



▲서남해 한해강 센터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초가 되면 우리바다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름철새 '노랑부리백로'를 5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이 여름진객 노랑부리백로가 여수에 출현했다.

백로과에 속하는 바닷새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는 이름에 걸맞게 노란색의 부리와 발

5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된 여름철새 '노랑부리백로' 여수 출현

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법적보호종(천연기념물361호, 멸종위기 I 급, 보호해양생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연상되는 순백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번식기에는 뒷머리의 땀기깃과 가슴의 장식깃이 자라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노랑부리백로는 5~8월에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갯벌, 하구, 논 등에서 어류나 갑각류 등을 주로 섭취하며 서식한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종도, 화성, 서천 등 서·남해안 연안에 약 166마리의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 번식지가 포화되어 유인도인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해안의 연안 개발, 인간의 번식지 방문 증가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여수는 매년5월이면 마지막날은 광양만의 조화리 갯벌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 노랑부리백로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바다

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 서식지 및 번식지를 관찰하고 있다.

특히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동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노랑부리백로는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랑부리백로가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갯벌생태계 복원·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 바다의 날 기념 '해안가 청결 활동' 펼쳐

31일 여수시가 제2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남면 횡간도에서 해안가 청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대장 박근호)가 주관했다.

여수해양과학고, 한화케미컬, 놀이마당 들꽃, 다사랑봉사단, 동여수노인복지관 등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 잠수대원 10명은 바다 속 해양생태계를 교란 시키는 불가사리, 패어구, 플라스틱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여수해양과학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해안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쓰레



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는

매년 해양쓰레기 취약지역을 선정해 청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규원기자

결혼정보회사

웨드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로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 유료회원수** 전남 최대 보유로 당신과 어울리는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혼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혼율은 웨드의 자랑입니다.
- 역사와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1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짝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전남2008-023
신고번호-전남2008-0003

☎ 061) 683-1000

꽃을 찾는 나비처럼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우리 삶지킴이, 건강검진 중요성



보건의료



김 명 숙
돌산평사보건진료소장

건강검진의 목적은 초기에 질병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다. 또 가장 아픈 곳이 없어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알아보고 조심히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건강검진은 건강관리의 불가결한 요소지만 민생은 아니다. 건강검진 진단 결과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예후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몸속에 큰 병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건강검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시작인 것이다.

시작을 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생로병사는 운명이지만 건강은 선택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어 간다는 사실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적당한 운동, 고른 영양섭취, 금연 및 적당한 음주, 비만예방 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퇴행성 질환의 발현을 지연 내지는 예방할 수 있다는 지식에서 온다고 본다. 건강검진 왜 필요하며 어떤 이득이 있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은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나 신체변화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검진자가 알지 못하고 있던 종양, 높은 혈당(당뇨), 높은 혈압(고혈압), 낮은 빈혈수치, 고지혈,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조기 발견이 좋은 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 대해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할 때, 1년 후 다음해의 검사에서 새로운 양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년마다 일반적 검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령적으로는 40세에 전체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약 25%에서 비교적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 낼 수 있으며, 또한 25%에서는 사소한 건강상의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 최초의 완전건강검진은 장래의 변화에 대한 비교 자료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정기건강검진 결과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지만, 만일 급작스러운 수치의 변화가 있을 때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현대 의학의 발전은 이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웬만한 질병은 조기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가 가능하거나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를 이루어 낼 수가 있다. 질병의 진행과 만성화, 그리고 그로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은 본인의 불행이며 사회경제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건강검진 즉, 예방의학의 중요성은 질병의 조기 발견에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이다. 건강의 소리에 귀 기울여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생활칼럼



한 정 운
변호사

노령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사례 1 : 장인·장모가 사위에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甲과 乙은 혼인하였는데, 甲의 장인·장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甲은 사업을 크게 하여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을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은 전업주부이면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장인·장모는 사위 甲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

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란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장모관계, 계친자관계(계부와 처의 자녀 사이, 계모와 부의 자녀 사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장인·장모는 사위 甲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 2 : 아들이 사망한 경우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母 丙을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중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서로 왕래를 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丙은 경제능력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요양상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丙은 재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乙은 그의 남편인 甲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 丙과는 여전히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과 丙은 서로 별거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 3 :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을까?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었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직계혈족이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甲이 과거에 乙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지 이로 인해 부양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북목 증후군(Turtle Neck Syndrome)



의료칼럼



이준형 원장
허리, 무릎, 어깨 전문(자연한의원)

거북목 증후군은 목의 형태가 거북목처럼 변형된 것을 말한다.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원인으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책을 보거나 컴퓨터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낮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주로 오래 앉아서 컴퓨터 등 사무관련 일을 하시

거나 학생들처럼 공부를 하면서 목이 앞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일종의 직업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나타나는 증상은 목과 등 근육에 영향을 주고 목 뒷부분의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 어깨 통증과 함께 등과 허리의 통증,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척추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기본적으로 많이 뭉치게 되어서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고 빠근한 느낌을 받게 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자세를 교정하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통증이 심해지고 자세가 고정되었다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치료로는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하며, 물리치료는 뭉친 근육을 손으로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방법 등이 있다. 침구치료로는 승모근의 긴장 및 촉진시 뭉친 부분에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같이 해서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으며, 모니터와 책상, 의자 등의 높이를 조절하여 예방할 수 있다. 항상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똑바로 펴는 것이 좋다. 그밖에 시간을 날 때마다 틈틈이 목을 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시간씩 앉아서 일하면 5분 정도는 목을 뒤로 젖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다.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시기를 바란다.



금융칼럼



김 충 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건물주가 아니라면, 우리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연금 세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체제를 구축해 놓는다면 노후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의 60%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해 주고, 가입자 사망시점까지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도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어 배우자가 혼자 남겨졌을 때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기업 퇴직금 지급제도를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수익

률은 풀어야 할 숙제다. 퇴직연금이 시장이 170조 규모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적절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번쯤은 이를 평가하고 투자자 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절실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의 퇴직연금등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0명중 10명뿐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년 1,800만원(세제 비적격 상품 / 월 납 15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세제 비적격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약정계약 10만원, 추가납입은 140만원까지 하면 된다. 여유가 있는대로 140만원 이하로 추가납입하고 여유가 없으면, 그 달은 그냥 1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부담도 적고, 추가납입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에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계약공제 받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無연금공제(연금 비적격), 無MG연금저축(연금 비적격) 등이 있다. 완벽한 노후 준비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루라도 덜 수 있다는 것뿐이다.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구직자 및 구인업체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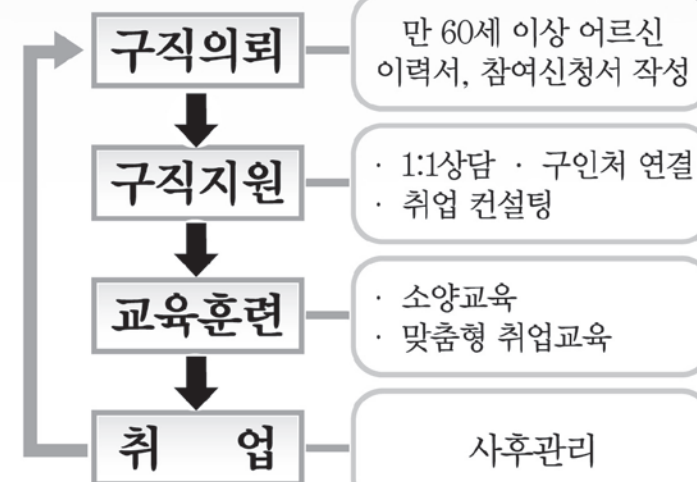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시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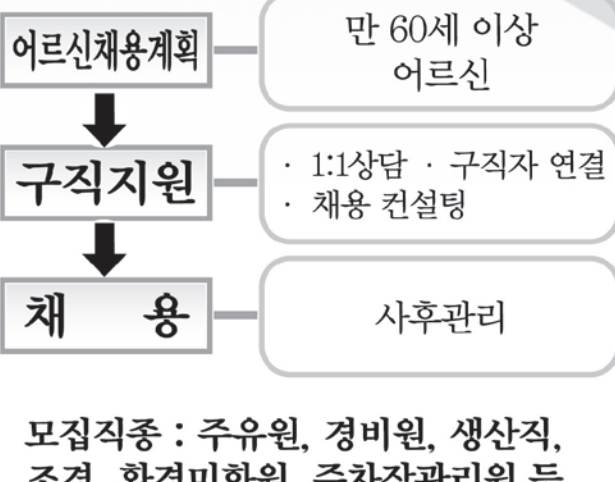
생산물 판매합니다

- ♣천생연분 떡볶이 ♣은모닝 도시락
- ♣고소미 참기름 ♣황금 두부
- ♣궁's푸드 천생연분 김치
- ♣바다내음 김부각 ♣여수 꽃빵
- ♣112카페, 카페다시봄

..... 구직자



..... 구인업체



일 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 지금 전화주십시오.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수시니어클럽
Yeosu community Senior Club

전화 ☎692-4555/9
팩스 ☎692-4556

오시는길 <여수시 만흥2길 9>
영진 자동차학원 · 여수교회 · 여수시니어클럽 · 만성리매수육장



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N들지 않는 꽃

일주일에 한번씩
영화 업니를 만나러 가는 길
읽은것이 많아
하늘도 못 쳐다본다는 그녀,
'업니 저 왔어요'
방 한 칸 복사꽃이 리본을 달고 웃는다
'업니 저건 무슨 꽃이에요?'
'응 저거 어버이날 아들이 썼는데 참 좋아
꽃은 시들며 없는데 읽은
파랗게 그대로 있어 또 꽃피겠지?'
그리고 보니 새순이 예쁘다
살며시 꼬집었는데 아프지 않다 조화다
'업니 그렇지, 새 순 좀 봐 아들이 생각이 깊네
잘 키워야 쓰것구만' 업니는 날마다 눈 맞추고 물 갈아주며
하늘로 보낸 아들처럼 살핀다.
박복한 가슴 칠 때도 시들지 않고 꼭 그만큼 만 자란
변하지 않는 꽃을 품에 꽃꽂아 보자
구순이 다 된 노모의 가슴에 아들은 시들지 않은 꽃이다



서수경

/ 詩詩한 이야기 /

“자식은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 낸 시들지 않는 꽃”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손상기 화백의 (시들지 않는 꽃)이 연상 된다.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다.

어쩌면 그 전시회를 감상하면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읽었는지 모를 일이다. 여수 출신의 천재 화가 손상기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3세 때부터 앓은 구루병 탓에 척추만곡(곡추)이라는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예술혼을 불태우며 자신의 길을 걸으며 발자취를 남겼다. 손상기는 문학과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화가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이미지의 집약체라는 시 같고 문학작품 같은 그림을 남겼다. 그는 스스로를 이미 시들어 버려 더 이상 시들 수 없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영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시의 시적인 화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을 방문하여 돌보는 생활지도사 인 것 같다. 구순의 노모와 나누는 대화의 따뜻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보내고 하늘로 떠날 것이라는 그녀, 옛 부터 우리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픈 심정을 참척(慘慼)이라 하였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으로 아들이 죽은 슬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상명지통(喪明之痛) 이거나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는 견지에서 단장지애(斷腸之哀)라 하기도 했다.

죽음은 근심과 슬픔을 불러 일으켜 넋이 빠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픔이 있는 것이다.

어버이날 아들이 사 준 조화 복사꽃이 리본을 달고 방 한 칸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미 꽃은 떨어져 나가고 일만 파랗게 나 있는데, 노모는 날마다 눈을 맞추며 정성껏 물을 갈아주고 아들처럼 보살핀다.

부모의 가슴속에 아들은 변하지 않는 꽃, 시들지 않는 꽃으로 존재한다.

정용화시인의 시귀처럼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 자식 일게다. 일 상 삶에서 이미 한 컷을 잡아내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아픔, 소중함을 절절이 보여준다. 오월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우동식

임호상 시인, 지역 최고 권위 제27회 한려문학상 수상

지역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대표적인 문학상

한려문학상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박인태) 한국문협회 여수지부(지부장 박현연)는 27회째를 맞는 2019 한려문학상 수상자로 임호상(53) 시인을 선정하고 6월 3일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남문인협회 김용국 회장과 류중구 청소년문학상운영위원장, 박정명 여수예총 회장 등 3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여 성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한려문학상은 그동안 27여 년간 이어져오며 지역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지역 문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임호상 시인은 1986년 갈무리문학 동인으로 문학 활동에 입문했으며, 2008년 “정신과 표현”에 겨울노동의 4편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1994년부터 여수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년간 사무국장 겸 부지부장을 거쳐 24대, 25대 여수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6년 시집 “조금새끼로 운다”와 시화집 “여수의 노래”를 발간했으며 현재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갈무리문학회의 공동 시집으로 “여수의 바다는 달고 푸르다”, “여수, 섬에 물들다”, “그림자라도 저 많은 꽃을 피우시네” 등 3권이 있으며 2016년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30여 년간 문단 활동을 해 온 임호상 시인은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중앙회 부회장과 전라남도지회 회장을 맡아 오며 종합이벤트대행사인 (주)소리기획을 25년간 운영해온 문화기획자이다

임호상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27년간 사재를 털어 문학상을 유지해온 박인태 운영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문학상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래도록 회자되는 좋은 시를 창작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잔디 틈새 무리 지어 핀 토끼풀
그 이쁘디 이쁜꽃을 잡초라고했다
생명력 강하고 빠르게 번식하는 잡초라며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했다

한 삼썩 밀어 넣으며
있는 힘껏 토끼풀을 떠내는데
실날같은 수많은 생명들이
집 한채, 속으로 속으로 짓고 있다
어릴 적 일곱식구왕기종이 모여 살던
단칸방 그 집처럼 여러 가족이 모여
산다

순간 내가 참 아박한 집주인 같았다

잔디 아닌 돌 틈에서 환한꽃 피면
손댈 필요없겠다
못 본 채 돌아선다

-〈토끼풀〉 전문-

세상에 잡초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것들도 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나름의 존재가치가 있다. 토끼풀을 한 삼 썩 떠내려다 그 아래 있는 수많은 생명선을 보면서 ‘단칸방에 7곱 식구가 왕기종기 모여 사는 그 집’이 생각나 못 본 채 돌아서는 시인의 모습은 휴머니스트다. ?
그래서 시 편편마다 저며 있는



배려를 만난다. 배려는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관계의 미학이며, 틈새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의 미학이다.
배려는 인간을 향해 천천히 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의 시정신은 휴머니즘에서 출발한다.
(신병은 시인)

최향란 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5

헤어스타일과 이미지

모델이나 배우, 가수가 촬영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엔 의상, 메이크업, 헤어가 주를 이룬다.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한 달 여전에 뷰티라이프에서 모델의 헤어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서울에 다녀왔다. 독자들이 길어야 2.3분 내에 읽을 잡지 사진을 찍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거의 6시간가량 걸렸고 섭외 요청 후 프로필 사진을 보고 컨셉을 잡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2시간가량 소요된 듯하다. 가끔 15분가량 소요되는 컷트 요금에 비싸다는 고객이 있을 때 15분의 컷트를 위해서 20년을 몸 바친거라고 너스레를 떨며 인정한다고 함께 웃곤 한다.

미용실을 방문하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준다든 것은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 정말 후 정돈된 깔끔함, 원하는 이미지 표현을 위한 수단, 돋보이고 싶은 욕구 충족 등이다. 그렇듯 이미지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천의 얼굴을 표현하기 위한 배우는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위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필요하다. 이번 촬영 이하주 배우도 세 가지 컨셉을 염두에 두고 헤어스타일 연출을 했다. 물결치는 무의식 마음의 요동을 22M 아이 룰을 이용하여 만들고 시작의 설렘과 떨림을 장미장식으로 꾸민고 바벨탑의 욕망은 쌍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하주 배우는 헤어스타일만 보고 표정을 만들어 주는 센스가 있어서 작업 내내 기분이 좋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 샵에서 고객을 위한 작업을 할 때에도 통하는 느낌의 고객이 있다. 미용사란 직업이 고객의 신체 를 만드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비단 머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만지는 직업이라 어쩌



면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만족스런 이미지 변신을 꾀했을 때 오는 보람과 행복이 있

COVER STORY



다. 엉뚱한 상상이지만 변화무쌍한 내면의 심리에 따라 머리카락이

표현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수시민, 나는 시민기자다!

제4기 여수일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여수일보
www.ysbtv.kr

교육기간	2019년 6월 4일(화)~7월 2일(화) 총 5 회(20시간)
교육대상	여수시니어클럽 임직원
교육장소	여수시니어클럽 교육실
교육시간	1~4강: 오후 3시~6시 5강: 오전 10시~오후 6시

날 짜	강 의 내 용
1강 6월 04일	O/T, 기자란 무엇인가 (3시간)
2강 6월 11일	현장취재 이야기와 리드잡기(3시간)
3강 6월 18일	여수지역 특성과 기사쓰기 연결하기 보도자료 활용법 (3시간)
4강 6월 25일	기사쓰기 및 인터넷 기사 올리기 (3시간)
5강 7월 02일	현장체험, 실습 (8시간)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여양중학교에서 전교생 대상 금융교육

MG새마을금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지식 취약계층 및 학생들 대상 금융교육 진행

소라면에 위치한 여양중학교에서 전교생(34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MG희망나눔교육)이 실시됐다. MG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지식 취약계층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일 교육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여수한려새마을금고(이사장 공경택) 주관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MG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사과정을 수료하고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한 김민혁 차장이 맡았다. 교육내용은 1부 이자, 2부 투자, 3부 신용관리, 4부 금융상식 순서로 약 45분간 진행되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금융교육이만큼 아이들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주었다.

점유"를 가장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혁 차장은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건물이라는 생산수단을 점유하면 그때부터 상가임대수익이 발생한다. 다른 예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이때 건물과 좋은 직장, 자격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임대수익과 소득은 "황금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이러한 생산수단은 한 번 점유하면 쉽게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와 사회적계급이 대물림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때그때 일시적인 소비를 위한 황금알을 좇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라고 설명했다. 준비한 학용품들 선물로 나눠주니 아직 어린 학생들답게 왁자지껄한바탕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이 이어졌다. 요즈음에는 예전과 달리 교과서에서도 금융경제관련 교육내용이 실려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험이 녹아든 교육내용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뒷이야기도 있다. 박종인 교장 선생님은 "전문강사의 금융교육으로 학생들의 금융 이해도가 증진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강사와 해당금고에 감사를 표하

였다. 교육에 참여한 김00양은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 대출과 이자의 관계 등에 대한 원리를 자세히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여수한려새마을금고는 2018년부터 매년 2회 이상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교육도 계획 중인 등 꾸준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영주 기자



우리지역 탐방

고락산성(鼓樂山城) 답사기

- 임병식/수필가 -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는 유서깊은 고락산성(古城)이 하나 있다. 고락산성(鼓樂山城)으로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이다. 이것이 한동안은 거의 다 허물어져 방치상태에 있었다. 내가 처음 그것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전이다. 그때 산에 올라 보니 산성은 폐성(廢城)일뿐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겨우 그것이 산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다가 20여년 후 다시 오르면 이때는 산성을 잘 정비하여 원형의 모습을 갖춰놓고 있었다. 보는 순간 반가웠다. 잊힐 뻔 한 역사를 복원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랐다. 사실 이 고락산성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주변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이면서 중요한 방어진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특별한 전투기록은 없지만 인근 순천 왜성에서 고니시가 머물고 있을 때 검단산성에서 조명연합군이 대치하고 중국 진린 제독은 모도 도독곶에서, 이순신 장군은 울진장도에서 전투를 벌일 때, 이성은 분명 후방 척후의 구실을 했을 것이다. 이 성은 2010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둘레는 354m, 보루의 둘레도 244m에 이른다.

성(城)의 형태는 남쪽은 좁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넓다. 나는 처음 허물어진 이 성을 보면서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렸다. 성을 쌓기 위해 얼마나 부역에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한때, 부역이라는 말은 지극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부역(負役)인데, 이 말이 반역에 가깝다는 부역(附近)과 말이 같기 때문이다. 이 성은 높이로 따지면 해발 400미터 정도가 되나 매우 가팔라서 맨몸으로도 오르기가 숨이 찬다. 그런데 이런 곳까지 무거운 돌을 등에 지거나 밧줄로 끌어 올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나중에 산에 오른 나는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근처에 쌓은 것과 옛 돌은 차이가 났다. 옛날 농민 바위는 고색이 창연했다. 그 밑돌을 보노라니 옛분들의 노역의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보기에 위험하기도 하려니와 큰 돌을 끌어 올릴 때는 무척 힘도 들었을 것 같다. 당시에는 무슨 노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와 부역을 했을 것이다. 이곳 성의 규모도 보아 병력은 적게 잡았고 수백 명, 중대 병력이상을 수용했을 것 같다. 나는 성을 둘러보다가 어느 분이 쓴 돌을 떠올렸다. 지금으

‘대포발전협의회’ 창립발대식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

대포지역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환경 감시활동 펼쳐나가기로

여수 소라면 대포 1, 2, 3, 4리 주민들이 '대포발전협의회' 창립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18일 대포2리에서 오후 6시, 개인 간의 협력과 건강을 위한 친목 활동을 연계할 목적으로 열린 발대식에는 대포지역구 의원인 최무경도의원을 비롯한 정현주 시의원, 주재현시의원, 민덕희시의원, 사)ECO-PLUS21김성은이사, 한정운변호사, 주승용국회부의원의 최철훈보좌관, 대포 주민 등 약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불법배출을 허위로 작성하여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후, 대포 이장단과 지역인사들과의 6차 회의 끝에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임공동대표 이재환 대표는 "우리 대포지역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유로 모든 채 병들어가면서도



여수시와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들의 개선 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스스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

다." 라고 말했다.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포주민들의 친목과 화합에 힘쓰며 대포지역주민들의 유해성 건강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

도록 주민환경 감시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참석했던 도시의원 및 내빈들은 대포지역민들이 다른 지역처럼 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역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힘쓰겠다는 차별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최항만 기자

여수 시니어클럽, 남원 '춘향제의 고장' 문화체험

일자리 참여 어르신 800여 명 참여



여수시니어클럽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을 춘향제가 열리는 남원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80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피로와 고단함을 풀어내고 서로의 유대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 89회 남원 춘향제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험 기간인 9일과 10일에는 사랑의 주사위, 버스킹 콘테스트, 번사극 "춘향전" 등이 열려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참여자 한 분이 즉석 노래자랑에 참여했을 때는 시니어클럽 임직원들이 함께 율동을 하고 참여자들이 박수를 치는 등 짝짝 이벤트도 있었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한 참여자 김모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

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특히 여수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 볼거리가 있어 즐겁고, 임직원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2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여수시니어클럽의 김순정 관장은 "2월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느라 마음 놓고 여행 다니거나 휴가를 즐길 수 없었던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만은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서로간의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뤄진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 간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신뢰가 쌓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활동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주 기자



K-water, "5월 가정의달맞이 사랑 나눔활동"

7일 여수 미루나무노인보호센터 『2019. 어버이날』 행사 실시

8일 여수 노인복지관 300명 어르신과 함께 『2019. 어버이날』 행사 실시



실시하는 나눔행사로 사랑을 전달해주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여수권지사 김영우 지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상대적으로 소외되

는 일부 어르신들과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water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규원 기자

여수 자산공원에 '낭만우체통' 등장

1년 후 엽서 배달, 일명 느린 우체통

여수시 자산공원, 바다가 시원하게 트여있는 곳에 낭만우체통이 등장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심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낭만우체통은 엽서에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배달되

는 일명 느린우체통이다. 우체통 외관은 여수시를 상징하는 동백꽃 모양으로 디자인했고, 엽서는 아름다운 여수 관광지 사진을 배경으로 했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가 우체통을

제작 설치하고, 여수우체국이 엽서 제작과 수거와 배달업무를 맡는다. 여행을 왔다가 느린 우체통을 만난 김 모씨는 "오늘의 추억을 1년 후에 만날 수 있다니 벌써 즐겁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즐거워 했다. 이 관계자는 "느림의 미학과 여수에서의 추억/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낭만우체통을 설치했다"며 "운영상황을 보고 우체통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은진 기자



초대석

김 성 은

(주)미주기업 대표



나눔수록 건강한 세상이 된다고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의 손길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사람, 따뜻한 너털웃음을 흘릴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울퉁불퉁해 있다는 사람, 다음은 (주)미주기업 김성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봉사와 나눔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김성은 대표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그냥 딱지는 대로 합니다. 무대포식이라고 할까요? 젊은 시절 무작정 돈만 벌었어요. 다 행히 운이 좋아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을 만큼 사업이 안정되었을 때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을까 그때서야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나 나눔을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 다.

-처음 봉사와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인 김영주회장(재능기부봉사단체회장)의 권유에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부터 친구니까 저와 친구는 3대째 친구입니다. 참 오랜 친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 2013년부터 봉사와 나눔이라는 세상에 첫발을 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파려 간다고 하기에 혹시 나도 도움을 줘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함께 가는 못해 아쉬웠지만 간간히 우물 파는 비용을 기부했습니다.

-무대포식 스타일 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없으신가요?

여수라이온스와 사)모두모아봉사대, 사)ECO-PLUS21에서 활동하고 있고 초록우산 후원사로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바빠서 봉사는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온 몸으로 땀 흘리며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사실 기부를 하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제가 제 맘 편하자고 남들보다 서둘러 기부하는 겁니다.

-봉사와 나눔이 모두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유난히 가슴에 남는 기부는 어떤 것인가요?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하는 건데 특히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화합을 위한 영남과호남의 화합의 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운영하는 미주기업이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부를 하여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앞장서야 할텐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냥 발짝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이 초록우산 후원사로군요. 미주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주)미주기업은 2010년 1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여천산단내에 건축자재임대업과 플랜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로는 주) 다온 ENG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도 아주 정신없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크든 작든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 열매 수확 중 아주 조금을 나누고 그 나눔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수일보 시민기자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여수일보 시민기자 2기 때 신청했다가 수



업일수 부족으로 수료를 못했고 올해 4월에 다시 3기 신청을 했고 겨우 수료해서 시민기자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글솜씨가 없고 시민의식도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껴어있는 눈을 갖게 해 준다는 시민기자 슬로건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사는 것이 많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반듯이 제 이름 석자로 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은 무대포식 스타일인가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면 간혹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를 망설이게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는 봉사와 나눔을 효과적이고 참다운 곳에 나누는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3대째 친구 김영주 회장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플랜을 잘 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열심히 사업에 몰두하다가 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말 없이 기부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곳이 많아요. 온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우리 모두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부를 하며 느끼는 뿌듯함으로 며칠을 잘 삽니다. 어떻게 기부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인이 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쉽습니까? 비우면 또 채워지니까 즐거운 기부가 됩니다. 나눔에 동참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제 즐기면 됩니다. 최항란기자



2019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협연

2019. 6. 8 SAT 14:00
GS 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주최 | 전라남도 | 경상북도

주관 | 어린이재단

참석문의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Tel. 061-921-4397 / 061-332-8993)

“지역예술문화, 브랜드화가 살길이다”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프롤로그

지금 우리시 문화예술 브랜드화를 위한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곧 착수보고회가 열리면 10월까지 우리시 문화예술브랜드화를 위한 반성과 전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치가 크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지를 팔고 사고, 이미지를 먹고 사는 시대에 살면서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의 삶의 브랜드화는 미래를 여는 매우 긴요한 가치요소다.

오늘날 문화와 창의성은 4차 산업의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사회통합과 도시 창조의 주요 가치요소로 된다. 특히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창조는 재발견이고 통섭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의 브랜드화는 없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해석하고 재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명문화해 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지닌 문화예술 인프라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연 힘도 알고 보면 노래 한국의 힘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브랜드화의 주요 가치 덕목은 공간, 사람, 안목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이라는 생산자와 수혜자간의 약속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수 이순신광장에 가면 여수의 문화예술의 정수를 만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단순히 영토적 구획이거나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존재 가치의 중요한 덕목으로 삶의 자존을 대변하는 요소가 된다.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자존하면서 공간이 창조의 덕목이 된 지 오래다. 상상을 스케치하고 문화예술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출력하는 진행형의 생명체로서의 공간이다.

문화예술의 브랜드화는 이처럼 여수라는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출력하는데 중요한 가치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수에 산다는 것 자체로 행복한 일이고 자존과 긍지가 되는 일이다.

그러려면 여수의 인적, 물적, 환경적인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챙기는 관심이 지역의 브랜드화이자 지역예술문화의 브랜드화가 된다.

잘 기른 문화예술인 한 사람이 열 기업 못지않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날 지역의 미래투자에서 큰 인물 만들기 프로젝트, 예술영재 발굴 육성, 지역예술인 재평가 및 자리매김은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 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안목이다. 지역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고급 독자가 필요한 시대다.

이것이 명품예술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된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예술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가 개관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술마루가 있어 서울,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뮤지컬, 오페라, 연극, 전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 보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안목이아말로 지역문화예술을 성장시키고 브랜드화 하는 근원적인 힘이며 에너지다.

이제는 도시생존전략의 비전으로써의 문화예술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브랜드화는 시대적 요청일 수밖에 없다.

삶을 공유하고 지역을 재발견하는 장으로써의 문화예술 즉 뮤지컬, 오페라, 무용, 국악, 연극,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크로스오버하면서 선순환의 문화예술창제와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를 어떻게 예술적 감성의 옷을 입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화예술자원의 지속적인 유효까지 창출해 가야한다.

지역문화예술의 브랜드화의 골격을 보면 전통예술의 복원과 재현, 장르별 대표 프로그램 자리매김, 낭만버스킹 명품화, 지역예술인 재평가, 큰 예술인 만들기 프로젝트, 예술영재교육, 예술마루 및 장도 브랜드화, 매월 시민오디션 개최, 박람회 때 만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속 공연, 문화예술재단 설립, 미술관 문화관 건립 등이 중요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여수

진정한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처럼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가 아니라, 여수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독립이 필요하다. 즉, 여수의 문화예술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메세나 운동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메세나 운동은 시와 기업체, 예술단체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와 기업이 예술의 옷을 입는 삶의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

는 일이다. 우리시는 여수국가산단에 10여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연 매출액만 해도 8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GS칼텍스 외는 이렇다할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은 어떻게 동참시켜갈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근래에 와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여수세계박람회,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해상케이블카, 그리고 예술마루다.

전남 제1의 도시로서 변변한 문화예술적 브랜드이미지가 없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다.

2018년 경우 우리시 문화예술 예산은 총 예산 1조 800억 대비 문화예술 225억으로 약 2%에 해당된다. 그보다 순수 예술문화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18억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시민박물관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시민미술관, 문학관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전문위원회 운영과 문화예술브랜드화를 위한 용역수행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와 추진이 기대된다.

이 작업은 우리시민의 정신을 브랜드화 하는 소중한 일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료를 정리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브랜드화

먼저 우리 여수에 소재하는 설화, 즉 신화 전설 민담의 스토리텔링 및 문학, 국악, 음악, 연극, 무용등의 장르간 경계가 지워진 리라리팅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충무공 승전문화의 재발견 및 브랜드화를 위한 매주 토요일 진남관을 중심으로 상설공연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진해루 장수회의와 군점, 수군총정식, 승전무(강강술래)로 이어지는 승전문화의 재현이다. 특히 진해루 장수회의는 임란 당시 구국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작업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중한 소재를 묵혀 둘 것이 아니라, 새미뮤지컬로 만들어 망해루에서 공연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여수의 전통문화인 거문도뱃노래, 현천소동배놀이, 영당풍어굿, 상문살굿, 용전제, 판소리 동편제 흥화가 등의 상설공연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작업 또한 이제 첫 걸음을 떼고 있어 향후 전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수의 노래 고려속어 ‘동동’의 브랜드화를 위해 문학관과 건립과 노래비 건립, 동동복합체 등을 관광문화 상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순관, 이덕형, 오형목, 굴은 김윤식 등 역사속의 문화예술인의 브랜드화도 중요하다. 오동도 설화, 진해루 장수회의, 숨겨진 이순신 이

야기, 여순항쟁 등의 소재를 활용한 새미뮤지컬 제작도 중요하다.

물 맑은 여수의 물의 풍경도 브랜드화하면 좋겠다.

이미 브랜드적 가치로 자리매김한 여수밤바다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터닝포인트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울해로 마무리되는 낭만버스킹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늘 답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버스커의 노랫말의 정적과 고요함이 깃든 여수밤바다의 원형성을 복원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 10시를 기해 주민이 동참하는 10분 잠진 상황을 연출하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버스커스쿨, 버스커아카데미, 버스커콘서트, 버스커대회 등 개최로 버스커의 도시 여수를 자리매김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거문도에서 여수까지의 뱃길을 활용한 화신맛이 선상 전구 시낭송대회 개최도 고려해볼 만하다. 오동도 설화를 통해 사랑의 스토리를 활용한 사랑의 마법 프로그램으로 ‘여수에서 사랑을 만들다’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좋고, 장도 석축교를 활용한 선남선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칠석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의 자존인 ‘예술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가는 행복한 고민이 될 것이다. 최고의 재즈보컬 웅산과 피아니스트 이선지를 중심으로 전국규모의 장도재즈페스티벌 개최도 고민해볼 만하다.

석축교를 활용한 물위를 걷는 사람들 연출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장도 소재 기억의 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마루와 장도의 브랜드화는 공간과 건축, 프로그램, 운영, 컬렉터가 브랜드화될 때 가능한 일이다. 장도 상설 전시관에 세계적인 작품 한 점을 비치하는 통 큰 투자가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2012세계박람회 때처럼 시민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오디션을 열고, 예산부터 결산까지 그 과정을 매월 프로그램화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든 오페라 <귀향>, 가무악극 <오동래>의 격년제 공연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인물의 브랜드화

인물에 대한 브랜드화도 프로그램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요소다.

이 도시에 누가 살았고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지역의 품격과 자존과 직결된 문제다. 저명한 출향예술인과 평생을 지역을 지키며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해온 예술인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필자는 그동안 거북선 여수에 김홍식, 박노식, 배동진, 박보은, 임영기, 지



정익, 정홍수, 김종안, 정우중 등의 작고 지역예술인을 중심으로 한분씩 조명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문지영, 뮤지컬 연출가 장유정, 연극연출가 김아라, 뮤지컬 제작 및 연출가 강병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김금화 등의 젊은 예술가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제 인물은 개인적으로 성숙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기업체의 협력이 없이는 어렵다.

잘 키운 문화예술인 한 명이 열 기업 못지않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예술인과 기업과의 협업인 메세나 운동 전개도 하루속히 전개되어야 한다.

하루속히 큰 예술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기업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1기업 1예술인 지원 육성 등 시와 기업, 문화예술인이 협업하는 메세나 운동 전개도 중요하다.

아울러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에 문화예술커뮤니티 센터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와 기업이 예술을 입게 되면 그 공간에 사는 시민들은 행복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함께 하며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선순환이 된다.

예술 영재교육 발굴,육성도 중요하다.

현재 여수청소년 문화상 공모, 여수음악제 마스터클래스 운영, 청소년연극제, 청소년무용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무한한 문화예술의 끼를 불러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여수 청소년 댄스 및 노래 오디션을 개최하여 그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청소년 문화선도에도 기여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목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상, 청소년 국악상, 청소년 미술상, 청소년 연극상, 청소년 무용상을 확대 운영하여 예술영재를 발

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여수음악제, 여수국제음악제, 여수시민합창제의 통합운영도 고민해야 하고 음악, 문학, 국악, 무용, 연극, 재즈, 팝, 오케스트라 등 장르를 초월한 콜라보레이션도 필요하다.

오래된 가계인 ‘선미당제과점’과 ‘신나라 레코드’와 22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현책방 ‘형설서점’을 활용한 문화프리마켓 운영도 브랜드화에 필요한 가치요소다.

아울러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창작 벨트 조성하고 예술인 작업실 탐방 로드맵 제작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벽화문화의 매력에 갈수록 식상해지고 있어 스토리가 있는 벽화골목 조성도 필요하다. 즉 주민이 함께 만든 골목갤러리, 주민들의 아트마켓 운영, 아이들과 함께 하는 창의력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면서, ‘나도 작가다 뽀뽀한 갤러리’ 운영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왕자, 니모, 아홉살 인생,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의 동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골목 조성하고 한 점 갤러리, 한 평 갤러리, 엉뚱한 사진관 운영의 발상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시의 첫인상을 전해주는 관문인 여수공항, 엑스포역, 여객선 터미널에서 행해지는 작은 음악회는 문화예술창제도시의 인상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오늘날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키워드는 문화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가치요소는 ‘행복한 삶의 선순환’이다.

결국 문화예술은 삶의 부수적 가치목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모든 요소에 통합되어 있다. 문화예술의 단일 항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민의 삶의 성숙 등과 함께 하는 통합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미래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KU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MM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B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Bosung Tech 블랙박스

S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무너지는 국민 생명권 공단도시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사건, LG화학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하여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어이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ECO-PLUS21 김영주회장은 5월 4일 오후 3시 경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

시켜 1시간 30분 만에 사전 동의 100명을 얻어 청원 등록이 되었고 현재도 청원 진행중이다. 다음은 국민청원 전문이다. 최항란 기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자치의 관리부실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해진 여수국가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조작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을 속인 중요한 범죄입니다.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의 사기행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수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까지 조작날조한 LG화학은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하여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 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 시민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LG화학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경계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시고

둘째, 두 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인 1종 2종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이관해 주십시오

여수시민들과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지난 3년 동안 재능기부 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ECO-PLUS21과 함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 근처에서 100여 차례 환경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전라남도와 대행측정업체 그리고 기업들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과 함께 "이상 없음"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확한 대기 측정에 대한 의구심을 수차례 제기하며 여수국가산단 LG화학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 지역에 생명을 지킬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줄 건의했지만 무시 당해왔습니다. 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수치 조작 사건이 터질 동안 전라남도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 환경지킴이 변함없이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

이지훈 어린이 국민청원에 동의, 나도 친구들도 여수시민이다

유해물질 가득한 이곳 우리 아이들 모니터링 나와야 하는 현실 안타까워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접수한 지 2일째 되는 6일 저녁8시, 사)ECO-PLUS21 어린이 환경지킴이들은 변함없이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을 했다.

이들은 3년째 매 달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LG화학전망대에 유해물질 측정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회원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는 학부모들 속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미세먼지측정기 사용을 익숙하게 하며 모니터링 하는 어린이환경지킴이들이다.

어린이지킴이 리더인 이지훈 어린이는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의 했다. 나도 친구들도 여수시민이다"라고 말하였고, 어린이 지킴이 황호은 어린이는 "모니터링 할 때 마다 항상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어렵다. 오늘도 악취측정결과는 5, 매우 나쁨이다"라고 말하였다.

함께 모니터링에 나온 학부모 최



은정씨는 "이렇게 고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와 유해물질 가득한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모니터링 나와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어른들이 지키질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수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사)ECO-PLUS21 김영주 회장은

모니터링을 나온 회원들에게 "우리도 소수고 힘이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노력한다면 시민들과 여수시가 자체 감독하는 환경권 1종 2종도 가져오고 우리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힘을 모아주길 부탁했다.

최항란 기자



여수시의회여수산단특위, 대기오염물질불법배출산단업체 '강경대응'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위원장 김행기)가 지난 22일 4차 운영회의를 갖고 여수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왔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여수산단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특위는 문제를 일으킨 여수산단 해당 업체들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특위의 향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향후 활동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재한 의원은 위반 사업장 본사 대표가 의회를 방문해 진정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고, 문갑태 특위 부위원장 또한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추진했던 산단 방문간담회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된 반면, 측정장비 또는 전문가의 참여 없는 당장의 사업장 방문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여수산단 특위는 향후 특위 활동방향을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조작사건이 먼저 해결된 후에 산단 방문간담회 일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해당 사건 대응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특위는 위반업체 대표 등을 의회로 소환하여 대책방안을 보고 받고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나현수 의원은 1~2종 여수산단 관리·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시민과 언론,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또는 국민 청원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산단업체를 상대로 생계를 뒤로한 채 연일 항의와 거리집회에 나서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위반업체로부터 진정성 있는 대시민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민주당 여수산단 유해물질특위 정책토론회

시민참여형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절대 '공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여수 갑·을지역위원회가 대기 유해물질 불법배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안전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감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기환경 전문가와 시의원 및 당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시민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주도해 여수산단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에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여수행복자치연구원 연구소장)는 "여수시민이 주도하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구성을 통한 '환경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와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현장 공개방안 및 여수산단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민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통해 발전소 환경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했고 소통창구 확대로 신뢰가 회복됐다"며 "주민이 신뢰하는 데이터를 확보해 업체 환경 경영마인드를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자로 나선 양창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환경관리팀장은 "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대기 측정대행

업 등록을 추진토록 해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경희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 환경 관련 조례 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중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민관환경감시기구가 만들어지면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조천래 여수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통계를 의하면, 화학사고의 절반이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문제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숨기지 말고 꺼내놓고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희 여수YMCA 국장은 "위험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 상실이 문제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히 여수산단 환경을 감시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철현 감지역위원장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지역민 스스로 나서서 살피고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배출 조작사건을 계기로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고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갑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유해물질대책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하고 여수갑·을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8만 여수시민들은 희망을 봤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원기자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책임시공